

## 학교 유형별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분석

곽 수 란<sup>1)</sup>

###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Ⅱ) 데이터를 활용하여 8개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만족도를 확인하였다. 분석은 부모의 교육관여, 학교의 수업분위기, 청소년기 의미 있는 타인인 친구인식과 자아정체감 형성시기를 반영하는 진로 및 자아의식 그리고 학습활동이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고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8개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만족도 인과관계 맥락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특수목적고에 해당하는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는 여타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와 학교만족도 맥락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학교만족도를 확인함으로써 학교의 목적 및 교육방향에 맞는 적절한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학교만족도, 고등학교 유형, 한국교육고용패널Ⅱ

## I. 서론

고등학생은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만족도는 고등학생의 생활 만족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학교만족도와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인 고등학생은 가정의 보호와 더불어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학교생활 또한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배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성인기로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학교 생활은 이러한 특성들이 모두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고등학교 진학은 학교유형에 따라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고등학교 유형은 선발기준이 다르며 선택이 다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대로 진학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학생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진로결정에 중요한 시기에 상당시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생의 학교만

1) 고구려대학교 교수



족도를 가정, 학교, 친구 그리고 진로의식 및 학습활동과의 인과관계로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학교만족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학교만족도를 확인함으로써 학교의 목적 및 교육방향에 적절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I. 고등학교 유형과 학교만족도 관련 요인

학교만족도는 학교교육의 성과가 학생들의 기대를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켰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전반적인 만족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평가로 규정하였다 (Huebner, Ash & Laughlin, 2001; Verkuyten, & Thijs, 2002; 이성주 외, 2016 재인용). 학생이 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학교만족은 학교생활만족 등과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학교만족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를 나타내며, 학교생활만족은 학생의 학교에 대한 사회심리적 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교만족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김두환·김지혜, 2011). 본 연구는 교육목적과 교육과정, 학교운영 방향이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교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을 포함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고 유형이 다른 학교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유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90조, 제91조)에 고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반고는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고등학교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통해 운영되는 학교이다. 반면, 자율형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유형이다. 자율형 고등학교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립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있다. 또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 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된 학교이다(<http://www.law.go.kr>).

학생의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안적 학교모형으로 크게 관광·통역·인터넷 멀티미디어·공예·디자인·패션·세무·보건·미용·자동차·애니메이션·금융·경영 및 농·공·수산 및 해양 등의 여러 분야로 나누어진 고등학교 유형이다. 특성화 고등학교 중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이다(<http://www.law.go.kr>). 일반고인 경우 진로가 대학진학이 주요 방향인 반면, 마이스터고는 취업을 주요 교육방향이며, 마이스터고 마다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협력 기업에 채용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이 확정된 졸업생은 최대 4년간 입영

을 연기할 수 있고, 군 복무 시 특기분야에 근무할 수 있다. 또한 3년 이상 근무 시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 등 취업 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http://www.hifive.go.kr>).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영역의 학교가 특수목적고이다. 특수목적고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 목적을 가진 학교로 과학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고,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고가 대표적이다(<http://www.law.go.kr>).

전술한 고등학교 유형은 학교의 교육목적, 교육과정이 다르게 운영되며, 따라서 학교 입학에 대한 조건 또한 다르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입학 시, 학교 교육목적이나 교육과정, 입학조건을 고려하여 학교 선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제48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기 중학생은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미래 계획을 고려하여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교육 및 학교 문화는 학생이 개인적 필요와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고등학교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이 모두 부모이고 그 다음이 학생 자신의 의견이라는 분석결과가 확인해 주고 있다(<표 5>). 이것은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능력이나 진로 계획에 따라 학교선택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을 때 학업과 학교생활 및 학교교육 성과에 대한 만족에 차이를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고등학생은 청소년기를 마무리하는 절정기에 있으며 건강한 성인기 생활을 위해 학업활동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가정에 생활의 토대를 두고 있으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그러나 단순히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학교에서 교육목적 달성이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학업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가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미성년인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소속한 학교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만족스러운 생활을 수행하는 것은 단순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다는 의미 이상을 함의하고 있다. 즉,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는 학생 개인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탐색이 필요한 것이다.

미성년인 고등학생은 가정을 벗어나 학교로 확대된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은 생활 및 교육 지원 배경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이에 가정배경 관련 특성과 학교 성과에 관련된 연구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Astone & McLanahan, 1991; Danielsen et al., 2009; DuBois et al., 2003; Huebner et al., 2001; 이명훈, 2007; 조은정·이혜경, 2007; 최지은·신용주, 2003; 황여정·김경근, 2006).

청소년인 학생은 학교와 학업활동이 중요한 생활영역이기 학교와 관련된 특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ruyn et al., 2003; Danielsen et al., 2009; Gilman & Huebner, 2003; Marks, 2000; Pate, 1993; McGuire & Weisz, 1982; Osternan, 2000). 더 나아가 국내의 연구에서도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또한 다양하게 논의 되고 있다. 가



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요인은 변수는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 및 학업활동, 학업성취, 규칙준수, 학교행사, 학교 풍토 등으로 볼 수 있다(곽수란, 2007, 2008, 2009; 문은식·김충희, 2002; 박행모 외, 2008; 이명훈, 2007; 이진숙, 2002; 윤현영, 2003; 최지은·신용주, 2003; 황여정·김경근, 2006).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장, 발달해 감에 따라 부모와 가족의 품을 벗어나서 보다 넓은 사회적 접촉을 해 나간다. 그중에서도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은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과 모범이 되고 또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인간의 사회 및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친구와의 관계는 우호적이며 만족스러울수록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Kurdek et al., 1985; Powell, 1993; 문은식·김충희, 2002; 최지은·신용주, 2003; 정규석, 2004; 곽수란, 2006 재인용).

전환기 청소년은 불안정한 특성을 해소하여 건강한 성인기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청소년은 부모를 포함한 성인기에 의존했던 자신과 환경에 대한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 따라서 자아정체감 형성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성인기에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결정하는 진로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긍정적 자아관은 생활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자아관 및 진로의식은 학교만족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Bandura et al., 1996; 곽수란, 2006; 김용래·김태은, 2001; 문은식·김충희, 2002; 신나나·도현심, 2000; 이경아·정연희, 1999).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의미 그리고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8개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만족도를 인과관계 맥락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Ⅱ 고등학교 2학년 1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KEEPⅡ는 고등학교 유형별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조사방향으로 설정하고 고등학교 2학년 단일 패널을 학교유형별로 10,770명의 자료를 수집한 데이터이다. 특히 마이스터고 정책의 목적달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과 일반계고 졸업생을 비교분석하여 마이스터고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1차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유형별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를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표본은 고등학생 가정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동질적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자가 아버지

와 어머니인 학생 9,096명을 일차적으로 선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절하도록 투입되는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7,928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계고 4,225, 자율고 447, 특성화고 1,697, 과학고 214, 외고어고 197, 예술고 200, 체육고 164, 마이스터고 784명이다. 이 연구는 동일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8개 유형의 학교만족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각 학교유형에 따라 데이터 수집에 차이가 있어, 분석에 투입된 사례수가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이러한 데이터의 속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변수 설명

본 연구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재학생의 학교만족도를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학교는 학업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만족도는 학업활동과 관련된 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학업활동을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포함시켰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은 청소년기의 절정에 있으며,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에 결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객관적 탐색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자신과 성인기로 이행했을 때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자신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청소년기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며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이지만 여전히 미성년이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정과 학교, 친구의 특성을 외생변수로 투입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하는 잠재요인과 측정변수를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측정변수 구성 및 설명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내용 및 척도	신뢰도
교육관여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관여, 가구데이터, 10문항 5점 척도 - 공부와 숙제에 대해 늘 확인, 일정관리, 친구나 친구부모와 교류, 교육관련 정보 수집, 과외 및 학원, 자녀교육에 대한 다른 가족 정보 습득, 시험성적에 집중, 친인척 대소사 참여제한, 대부분 자녀와 함께 한다, 체력단련 및 영양공급에 관심 - 점수가 클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관여 높음	.788
수업분위기	- 학교 수업시간의 분위기, 학생데이터, 4문항 5점 척도 - 수업시간 잠을 자는 학생, 수업시간에 다른 공부하는 학생,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 수업시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 척도를 역전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분위기 좋음	.688
친구인식	- 친구와의 관계 인식, 학생데이터, 3문항 5점 척도 - 친구존중, 고민 대화,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 - 역전환한 문항을 포함, 점수가 클수록 친구와의 관계 좋음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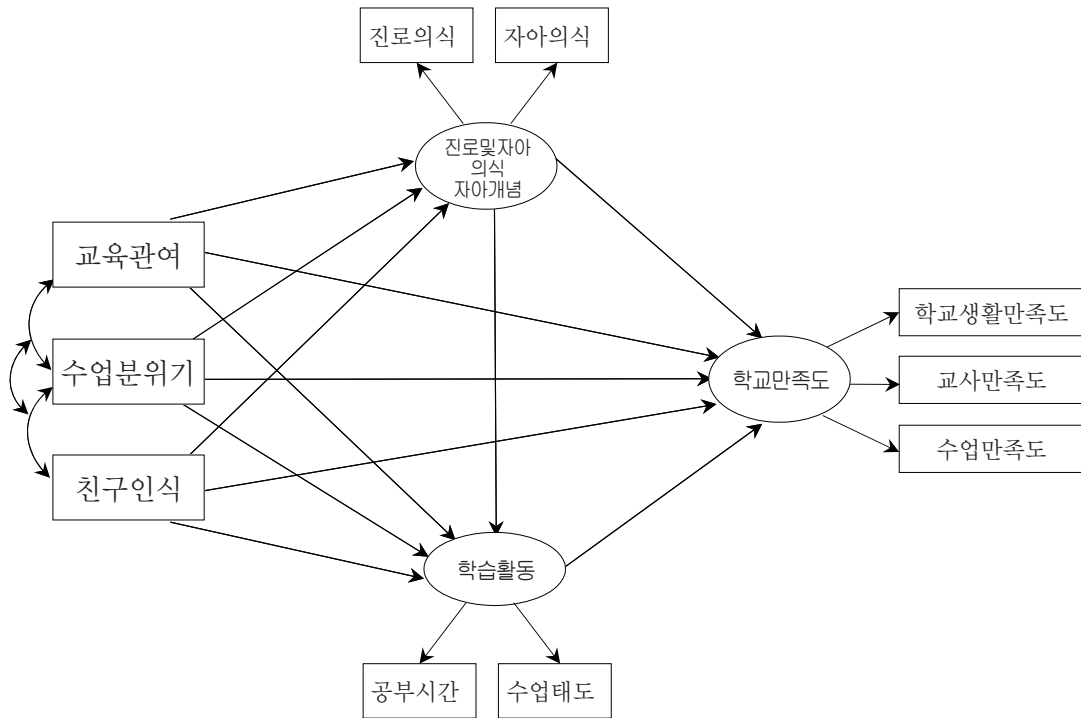
변수		내용 및 척도	신뢰도
진로 및 자아의식	진로의식	- 진로에 대한 학생의 인식, 학생데이터, 14문항 5점 척도 - 직업세계, 직업정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위한 학력 자격 정보, 진로 계획, 진로 준비, 진로 선택 등 -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식 높음	.908
	자아의식	- 자신에 대한 인식, 학생데이터, 6문항 5점 척도 - 자신의 흥미, 적성, 효능감 등 -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인식 높음	.839
학습활동	공부시간	- 학교나 학원, 과외 수업을 제외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 주중 및 주말 평균 시간 - 점수가 클수록 공부시간 많음	-
	수업태도	- 학생 자신의 수업태도, 학생데이터, 5문항 5점 척도 - 수업시간 집중, 수업시간 질문, 숙제, 복습, 연습 - 점수가 클수록 수업태도 좋음	.796
학교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 학생이 인식한 학교생활 전반 만족도, 학생데이터, 5점 척도	-
	교사만족도	- 학교 교사(4문항)와 담임(5문항)에 대한 만족도, 학생데이터 9문항 5점 척도 - 교사존경, 호감, 이해, 공정, 칭찬, 학업격려 등 - 점수가 클수록 교사만족도 높음	.903
	수업만족도	- 국, 영, 수 교사의 수업만족도, 학생데이터, 총9문항 5점 척도 - 수업담당교사의 과목지식, 수업내용 잘 가르침, 수업내용 이해했는지 확인 - 점수가 클수록 수업만족도 높음	.856

### 3. 분석방법 및 모형

본 연구는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만족도를 가정, 학교, 친구 요인을 외생변인으로, 청소년기 특성과 더불어 학교가 학업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진로 및 자아의식 과 학습활동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와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그리고 평균차이검증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는 자료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상관관계는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Pearson 적률 상관계수로 제시 하였다. 고등학교 유형별 측정변수의 평균차이 검증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단순한 특성을 탐색해 보고자 수행 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요인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계기법이다(이기중, 2012). 본 연구는 학교의 목적과 교육과정이 다른 고등학교 8개 유형을 동일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인과관계에 대한 집단 비교는 설정된 모형이 동질적인 맥락을 갖고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8개 유형의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와 각각 다집단모형분석을 실시하여 비교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 모수추정은 최대가능법(ML)을 채택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학교만족도 구조방정식모형

## IV. 분석 결과 및 해석

### 1. 기술통계 및 평균차이 분석

<표 2>는 측정변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 것으로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값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방정식모형 ML추정의 기본 가정은 개별 변수의 정상성으로 대체하였다. 8개 유형 고등학교별 기술통계량은 생략하였다.

<표 3>은 측정변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이다. 측정변수 간 이변량 상관관계수 모두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분석에 투입된 사례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상관관계수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관관계수는 인과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2〉 기술통계량(N=7,928)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교육관여	1.00	5.00	2.73	0.55	-.20	.64	
수업분위기	1.00	5.00	3.31	0.67	-.26	.20	
친구인식	1.00	5.00	4.00	0.61	-.34	.11	
진로 및 자아의식	진로의식	1.00	5.00	3.55	0.61	-.16	.29
	자아의식	1.00	5.00	3.71	0.65	-.14	.22
학습활동	공부시간	0.00	37.00	4.31	4.71	1.99	4.69
	수업태도	1.00	5.00	3.10	0.71	.03	.24
학교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1.00	5.00	3.69	0.85	-.39	.16
	교사만족도	1.00	5.00	3.86	0.65	-.28	-.02
	수업만족도	1.00	5.00	4.06	0.61	-.33	-.13

〈표 3〉 측정변수 상관행렬 및 공분산행렬(n=7,928)

측정변수	$x_1$	$x_2$	$x_3$	$y_1$	$y_2$	$y_3$	$y_4$	$y_5$	$y_6$	$y_7$
교육관여( $x_1$ )	.302	.013	.022	.044	.034	.401	.067	.019	.028	.022
수업분위기( $x_2$ )	.036**	.444	.065	.060	.039	.516	.085	.091	.087	.096
친구인식( $x_3$ )	.065**	.160**	.374	.103	.133	.354	.090	.111	.114	.097
진로의식( $y_1$ )	.131**	.147**	.278**	.371	.229	.679	.187	.107	.130	.112
자아의식( $y_2$ )	.095**	.090**	.332**	.576**	.427	.465	.158	.155	.126	.102
공부시간( $y_3$ )	.155**	.164**	.123**	.237**	.151**	22.20 2	1.184	.305	.340	.343
수업태도( $y_4$ )	.170**	.179**	.206**	.430**	.337**	.352**	.511	.173	.168	.141
학교생활만족도( $y_5$ )	.041**	.159**	.212**	.206**	.277**	.076**	.282**	.731	.233	.165
교사만족도( $y_6$ )	.079**	.201**	.286**	.327**	.296**	.111**	.360**	.418**	.425	.209
수업만족도( $y_7$ )	.065**	.236**	.260**	.301**	.255**	.120**	.323**	.317**	.527**	.372

\* $p < .05$  \*\* $p < .01$ , 대각선 위는 공분산행렬, 대각선 아래는 상관행렬

〈표 4〉, 〈표 5〉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학교선택 이유와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학교선택 이유는 대학진학 비율이 가장 높고(41.3%), 적성고려(18.4%), 취업목적(15.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학교 유형에 따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고와 자율고 그리고 외국어고는 대학진학 목적으로, 적성고려는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취업목적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학교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방향과 비교적 일치하는 특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고등학교 진학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은 모든 학교 유형에서 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본인의 선택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등교육기간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성인의 보호와 관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선택에 있어 부모의 영향이 절



대적인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경우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한다. 또한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같은 정책이나 진로지도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학교선택이유와 학교 유형간 교차분석 결과(n=7,928)

학교선택이유	학교유형( $\chi^2=5593.013$ df=35, p=.000)								전체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대학 진학	2624 (62.1)	265 (59.3)	142 (8.4)	39 (18.2)	106 (53.8)	45 (22.5)	52 (31.7)	1 (.1)	3274 (41.3)
가정형편	16 (.4)	5 (1.1)	26 (1.5)	0 (0.0)	0 (0.0)	0 (0.0)	0 (0.0)	31 (4.0)	78 (1.0)
성적고려	602 (14.3)	66 (14.8)	399 (23.5)	14 (6.5)	14 (7.1)	4 (2.0)	5 (3.0)	12 (1.5)	1116 (14.1)
적성고려	390 (9.2)	54 (12.1)	396 (23.3)	159 (74.3)	67 (34.0)	147 (73.5)	89 (54.3)	157 (20.0)	1459 (18.4)
취업목적	56 (1.3)	4 (.9)	628 (37.0)	1 (.5)	1 (.5)	1 (.5)	2 (1.2)	559 (71.3)	1252 (15.8)
기타	536 (12.7)	53 (11.9)	106 (6.2)	1 (.5)	9 (4.6)	3 (1.5)	16 (9.8)	24 (3.1)	748 (9.4)
합계	4224 (100.0)	447 (100.0)	1697 (100.0)	214 (100.0)	197 (100.0)	200 (100.0)	164 (100.0)	784 (100.0)	7927 (100.0)

〈표 5〉 고등학교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과 학교 유형간 교차분석 결과(n=7,928)

학교 선택	학교유형( $\chi^2=534.127$ , df=49, p=.000)								전체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본인	955 (22.8)	122 (27.5)	383 (23.0)	35 (16.4)	47 (24.0)	47 (23.5)	41 (25.3)	206 (26.3)	1836 (23.4)
부모	1786 (42.6)	187 (42.2)	521 (31.3)	107 (50.0)	88 (44.9)	78 (39.0)	64 (39.5)	258 (33.0)	3089 (39.3)
교사	480 (11.4)	53 (12.0)	352 (21.1)	22 (10.3)	19 (9.7)	15 (7.5)	36 (22.2)	160 (20.5)	1137 (14.5)
친인척	72 (1.7)	4 (0.9)	29 (1.7)	3 (1.4)	3 (1.5)	0 (0.0)	4 (2.5)	20 (2.6)	135 (1.7)
과외교사	176 (4.2)	22 (5.0)	23 (1.4)	18 (8.4)	15 (7.7)	42 (21.0)	2 (1.2)	8 (1.0)	306 (3.9)
선배	70 (1.7)	6 (1.4)	62 (3.7)	8 (3.7)	8 (4.1)	2 (1.0)	5 (3.1)	40 (5.1)	201 (2.6)
친구	573 (13.7)	39 (8.8)	230 (13.8)	14 (6.5)	10 (5.1)	10 (5.0)	7 (4.3)	67 (8.6)	950 (12.1)
기타	85 (2.0)	10 (2.3)	66 (4.0)	7 (3.3)	6 (3.1)	6 (3.0)	3 (1.9)	23 (2.9)	206 (2.6)
합계	4197 (100.0)	443 (100.0)	1666 (100.0)	214 (100.0)	196 (100.0)	200 (100.0)	162 (100.0)	782 (100.0)	7860 (100.0)

학교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이 부모라는 결과는 학생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 또한 시사한다. 이에 <표 6>은 가정의 경제적 배경과 학교유형과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평균차이 검증은 log값으로 하였으며, 평균값은 원자료 기술통계값이다. 분석결과 월평균 소득과, 사교육비 그리고 부모 학력 모두 학교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성화고가 가장 낮고 과학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명백하게 고등학교 선택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학교유형별 가정배경 변수 평균차이 분석**

측정변수	학교유형	N	평균	ANOVA				
				항목	SS	df	MS	F
월평균 소득 (만원)	일반고	4225	574.51	집단간 집단내 합계	139.070 1897.006 2036.076	7 7920 7927	19.867 .240	82.945***
	자율고	447	604.69					
	특성화고	1697	446.81					
	과학고	214	743.15					
	외국어고	197	685.23					
	예술고	200	692.00					
	체육고	164	495.54					
	마이스터고	784	471.12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일반고	4225	57.23	집단간 집단내 합계	817.898 4484.388 5302.286	7 6233 6240	116.843 .719	162.403***
	자율고	447	67.19					
	특성화고	1697	19.71					
	과학고	214	80.23					
	외국어고	197	70.21					
	예술고	200	95.36					
	체육고	164	27.30					
	마이스터고	784	11.31					
아버지 학력	일반고	4219	14.26	집단간 집단내 합계	5149.610 48403.154 53552.764	7 7904 7911	735.659 6.124	120.129***
	자율고	447	14.81					
	특성화고	1694	12.85					
	과학고	213	16.32					
	외국어고	197	15.84					
	예술고	200	15.17					
	체육고	163	13.60					
	마이스터고	779	13.50					
어머니 학력	일반고	4219	13.73	집단간 집단내 합계	3610.484 39711.511 43321.995	7 7909 7916	515.783 5.021	102.724***
	자율고	445	14.22					
	특성화고	1697	12.53					
	과학고	212	15.33					
	외국어고	197	14.99					
	예술고	200	14.81					
	체육고	164	13.17					
	마이스터고	783	13.23					

<표 7>은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되는 측정변수의 학교유형별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이다. 10개 측정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측정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과학고가 높은 평균, 특성화고는 낮은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학교만족도 변수에서는 예술고와 체육고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학교 유형에 따라 학교만족도가 차이가 있으며 특히 특수목적고 간의 학교만족도 격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특수목적고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다르며 또한 입학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입학은 학생 자신의 재능과 동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만족도가 다른 유형의 학교보다 낮게 나타나는 점은 추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7〉** 측정변수의 학교유형별 평균차이 분석

측정변수	학교유형	N	평균	ANOVA				
				항목	SS	df	MS	F
교육관여	일반고	4225	2.75	집단간 집단내 합계	81.51 2312.51 2394.02	7.00 7920.00 7927.00	11.64 0.29	39.88***
	자율고	447	2.88					
	특성화고	1697	2.58					
	과학고	214	3.03					
	외국어고	197	2.91					
	예술고	200	2.90					
	체육고	164	2.76					
	마이스터고	784	2.71					
수업 분위기	일반고	4225	3.25	집단간 집단내 합계	454.80 3063.58 3518.38	7.00 7920.00 7927.00	64.97 0.39	167.96***
	자율고	447	3.49					
	특성화고	1697	3.10					
	과학고	214	3.98					
	외국어고	197	4.00					
	예술고	200	3.14					
	체육고	164	2.99					
	마이스터고	784	3.73					
친구인식	일반고	4225	4.01	집단간 집단내 합계	38.93 2927.51 2966.44	7.00 7920.00 7927.00	5.56 0.37	15.05***
	자율고	447	4.06					
	특성화고	1697	3.89					
	과학고	214	4.14					
	외국어고	197	4.23					
	예술고	200	3.99					
	체육고	164	4.01					
	마이스터고	784	4.06					
진로의식	일반고	4225	3.52	집단간 집단내 합계	177.29 2762.95 2940.24	7.00 7920.00 7927.00	25.33 0.35	72.60***
	자율고	447	3.67					
	특성화고	1697	3.38					
	과학고	214	4.07					
	외국어고	197	3.81					
	예술고	200	3.64					
	체육고	164	3.44					
	마이스터고	784	3.78					



측정변수	학교유형	N	평균	ANOVA				
				항목	SS	df	MS	F
자아의식	일반고	4225	3.68	집단간 집단내 합계	104.23 3284.10 3388.33	7.00 7920.00 7927.00	14.89 0.42	35.91***
	자율고	447	3.77					
	특성화고	1697	3.59					
	과학고	214	4.07					
	외국어고	197	3.85					
	예술고	200	3.80					
	체육고	164	3.76					
	마이스터고	784	3.94					
공부시간	일반고	4225	5.06	집단간 집단내 합계	28257.54 147738.08 175995.62	7.00 7920.00 7927.00	4036.79 18.65	216.41***
	자율고	447	6.98					
	특성화고	1697	1.69					
	과학고	214	9.47					
	외국어고	197	7.78					
	예술고	200	3.68					
	체육고	164	1.30					
	마이스터고	784	2.96					
수업태도	일반고	4225	3.12	집단간 집단내 합계	235.00 3815.62 4050.62	7.00 7920.00 7927.00	33.57 0.48	69.68***
	자율고	447	3.33					
	특성화고	1697	2.86					
	과학고	214	3.66					
	외국어고	197	3.44					
	예술고	200	3.04					
	체육고	164	2.95					
	마이스터고	784	3.23					
학교생활 만족도	일반고	4225	3.65	집단간 집단내 합계	54.53 5739.17 5793.71	7.00 7920.00 7927.00	7.79 0.73	10.75***
	자율고	447	3.73					
	특성화고	1697	3.67					
	과학고	214	3.91					
	외국어고	197	3.66					
	예술고	200	3.67					
	체육고	164	3.51					
	마이스터고	784	3.89					
교사 만족도	일반고	4225	3.82	집단간 집단내 합계	85.48 3282.91 3368.39	7.00 7920.00 7927.00	12.21 0.42	29.46***
	자율고	447	3.95					
	특성화고	1697	3.79					
	과학고	214	4.15					
	외국어고	197	3.99					
	예술고	200	3.78					
	체육고	164	4.01					
	마이스터고	784	4.09					
수업 만족도	일반고	4225	4.02	집단간 집단내 합계	119.94 2825.50 2945.45	7.00 7920.00 7927.00	17.14 0.36	48.03***
	자율고	447	4.18					
	특성화고	1697	3.96					
	과학고	214	4.43					
	외국어고	197	4.30					
	예술고	200	3.86					
	체육고	164	4.04					
	마이스터고	784	4.29					

## 2.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분석

<표 8>은 8개 학교유형별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정량적 적합도 평가지표인 Chi-square( $\chi^2$ )는 설정된 모형에 의해 시사되는 공분산행렬은 모집단에서의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분산행렬에 잘 들어맞는 정도를 나타내는 적합도 지수이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 평가에 있어  $\chi^2$ 값이 크고 확률 값이 유의미하게 작으면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8개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성적 지표로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으며, 8개 고등학교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학교유형별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인과관계 분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체 모형이나 개별 인과관계 맥락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일반고와 나머지 7개 고등학교를 각각 매칭하여 학교유형 간 비교가 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표 8>은 7개 유형의 고등학교와 일반고를 각각 매칭한 다집단모형분석 적합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율고, 특성화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와의 매칭은 적합하게 나타난 반면 유일하게 일반고와 과학고 다집단모형분석은 수렴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육관여, 수업분위기, 친구인식, 진로및자아인식 그리고 학습활동이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 맥락이 일반고와 과학고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고 학생의 학교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요인과 다른 특성을 가진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8>**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지수

구조방정식모형	$\chi^2$	df(p)	GFI	NNFI	RMR	다집단모형분석(df=70)		
						$\chi^2(p)$	NNFI	RMR
일반고(N=4,225)	250.56	23(.00)	.99	.96	.023	-	-	-
자율고(N=447)	58.16	23(.00)	.97	.95	.036	354.55(.00)	.97	.042
특성화고(N=1,697)	120.20	23(.00)	.99	.95	.026	574.92(.00)	.96	.049
과학고(N=214)	31.46	23(.11)	.97	.97	.038	다집단모형분석 수렴되지 않음		
외국어고(N=197)	48.64	23(.00)	.95	.91	.044	337.37(.00)	.97	.042
예술고(N=200)	36.82	23(.00)	.96	.94	.043	335.61(.00)	.97	.041
체육고(N=164)	19.19	23(.69)	.98	1.00	.034	314.67(.00)	.97	.040
마이스터고(N=784)	65.48	23(.00)	.98	.96	.031	431.43(.00)	.96	.045

<표 9>는 측정변수가 요인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측정모형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진로 및 자아의식, 학습활동, 학교만족도 요인을 설명하는 람다( $\lambda$ ) 추정치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3요인을 대표하는 측정변수가 각각의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해석과 논의는 잠재요인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9〉** 측정모형 추정치

추정 경로		측정모형 추정치( $\lambda$ )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진로 및 자아의식	→진로의식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아의식	1.04(31.91)	.96(10.06)	.96(19.20)	.85(7.28)	1.13(8.61)	1.02(8.49)	.84(5.47)	1.13(13.91)
학습 활동	→공부시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수업태도	.33(15.26)	.20(6.19)	.63(9.78)	.23(3.31)	.34(2.80)	.38(2.45)	.50(3.68)	.70(4.49)
학교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교사만족도	1.09(27.84)	1.15(9.08)	1.05(18.37)	1.46(5.52)	1.07(5.39)	1.50(5.41)	1.96(4.00)	.93(13.70)
	→수업만족도	.84(26.89)	1.06(9.09)	.89(17.73)	1.03(5.42)	.81(5.31)	.79(4.93)	1.77(4.01)	.62(12.32)

추정치(t-value), 측정모형 전체  $\lambda$  값은 \*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함

<표 10>, <표 11>은 8개 고등학교 유형별 구조방정식모형 직접, 간접 효과 개별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일반고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일반고는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이고, 마이스터고는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학교로 학교목적과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KEEPⅡ 데이터가 일반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을 비교 분석하여 마이스터고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했는지 분석해 나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교육을 실시하는 일반고와 산업수요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마이스터고 2개 학교유형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그 외 6개 학교유형의 결과는 첨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 [그림 3]은 표준화추정치로 제시한 구조방정식모형 추정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교육관여, 학교의 수업분위기, 친구인식→진로 및 자아의식 경로는 두 학교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교육관여와 친구인식은 통계적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업분위기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교육관여, 수업분위기, 친구인식→학습활동 경로는 두 학교에서의 경로가 차이가 있다. 먼저 교육관여는 일반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만 마이스터고에서는 유의하지 않으며, 수업분위기는 일반고에겐 유의하지 않지만 마이스터고에서는 유의하다. 다만 수업분위기→학습활동 경로는 두 학교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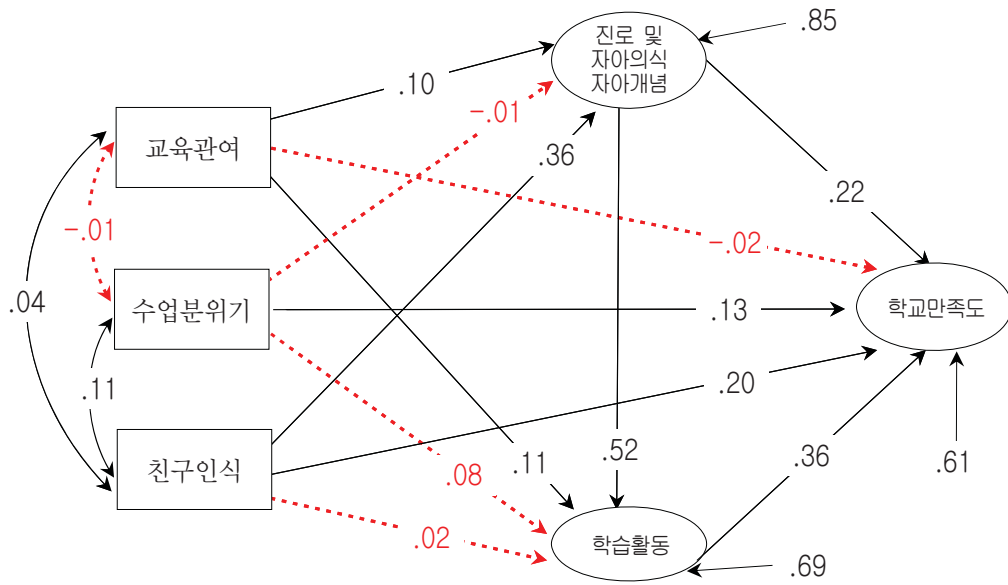
일반고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진로지도에 대한 방향이 가장 뚜렷하게 다른 특성을 갖는다. 마이스터고는 졸업 후 직업현장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인 반면 일반고는 졸업 후 직업을 위한 전문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로 및 자아의식이 두 학교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부모의 교육관여가 높거나 친구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이면 진로 및 자아의식이 높거나 긍정적인 공통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6개 학교 유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관여→진로및자아의식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교는 특성화고와 체육고만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친구인식→진로및자아의식 경로는 8개 학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청소년기 절정을 이르는 시점으로 자신과 미래 진로에 대한 생각은 부모의 영향보다는 친구의 영향이 결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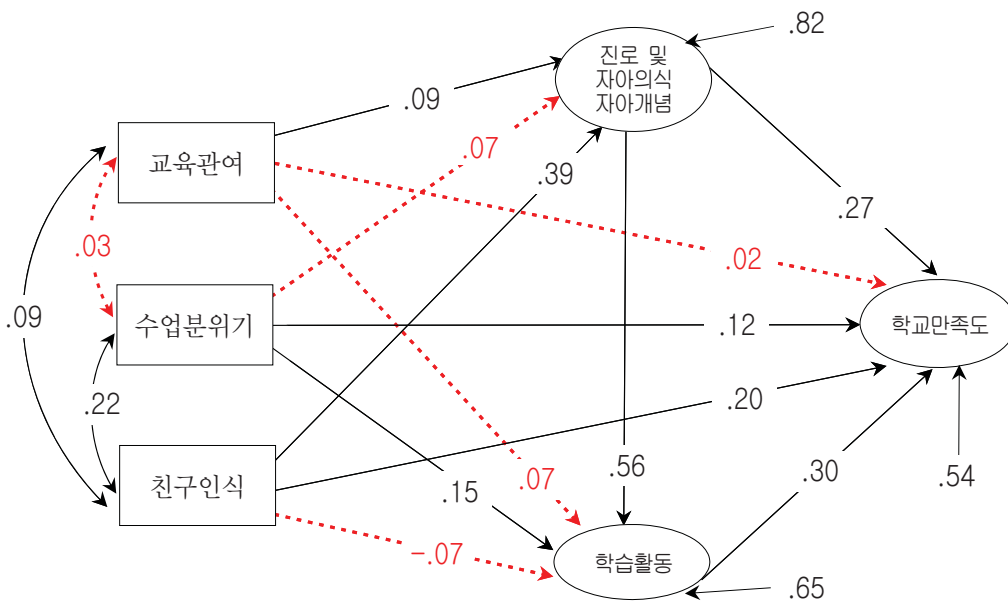
그러나 교육관여, 수업분위기, 친구인식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인식을 제외하고 교육관여와 수업분위기 효과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교육관여가 학습활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교는 일반고와 특성화고이며 그 외 학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반면, 수업분위기→학습활동 경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유의하지 않으나, 그 외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교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목적과 방향에 따라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외생변수 친구인식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특성화고를 제외한 7개 학교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특성화고의 경우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 친구와의 관계는 친구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학습활동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학습활동은 상호 협조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주변인과 단절하면서 수행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외생변수인 교육관여, 수업분위기, 친구인식과 진로및자아의식, 학습활동이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고와 마이스터고에서 공통적으로 교육관여→학교만족도 경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그 외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관여는 8개 고등학교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교육관여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간섭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여는 고등학생에게 학업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인식되며 더 나아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학업활동이 부모의 간섭 같은 관여가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강력하게 원하는 청소년기에 이러한 반복적인 생활특성은 학교생활이나 교사의 수업활동 등에 불만족을 가질 가능성을 매우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고와 마이스터고는 교육관여가 학습활동과 진로및자아의식을 매개하면 학교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자율고, 과학고, 예술고와 체육고의 경우 학습활동과 진로및자아의식을 매개하더라도 학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표 11>).

수업분위기→학교만족도는 외국어고, 예술고, 과학고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교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여타 생활맥락에 상관없이 학교의 수업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좋다면 수업 및 학교생활이 매우 긍정적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 2] 일반고등학교 모형



[그림 3] 마이스터고등학교 모형



〈표 10〉 학교만족도 인과관계 직접효과

경로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관여	→진로및자아의식	.10(6.15)***	.06(1.05)	.10(3.73)***	.09(2.38)*
	→학습활동	.11(6.23)***	.08(1.47)	.11(3.68)***	.07(1.73)
	→학교만족도	-.02(-.95)	-.07(-1.45)	-.03(-1.00)	.02(.56)
수업분위기	→진로및자아의식	-.01(-.35)	.01(.22)	.09(3.13)**	.07(1.74)
	→학습활동	.08(4.80)***	.24(3.74)***	.10(3.42)***	.15(2.98)**
	→학교만족도	.13(8.00)***	.18(3.15)***	.12(4.32)***	.26(6.25)***
친구인식	→진로및자아의식	.36(20.32)***	.35(6.28)***	.38(13.44)***	.39(9.10)***
	→학습활동	.02(1.38)	-.02(-.27)	-.07(-2.00)*	-.07(-1.59)
	→학교만족도	.20(10.79)***	.21(3.73)***	.15(5.08)***	.12(2.92)**
진로 및 자아의식	→학습활동	.52(13.10)***	.63(5.25)***	.65(8.57)***	.56(4.16)***
	→학교만족도	.22(7.41)***	.27(2.56)*	.31(4.77)***	.27(3.40)***
학습활동	→학교만족도	.36(11.57)***	.24(2.19)*	.32(4.89)***	.30(3.70)***
방해오차(ζ)	진로 및 자아의식	.85	.87	.82	.82
	학습활동	.69	.52	.55	.65
	학교만족도	.61	.59	.56	.54
경로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교육관여	→진로및자아의식	.24(3.16)	.03(.36)	.23(2.78)**	.01(.10)
	→학습활동	.14(1.46)	-.01(-.12)	.14(1.31)	.16(1.73)
	→학교만족도	-.08(-.91)	.09(1.26)	-.01(-.07)	-.03(-.19)
수업분위기	→진로및자아의식	.19(2.54)*	-.12(-1.60)	-.02(-.19)	.14(1.91)
	→학습활동	.13(1.43)	.27(1.84)	-.06(-.65)	.36(2.72)**
	→학교만족도	.11(1.31)	.22(1.88)	.26(2.68)**	.05(.17)
친구인식	→진로및자아의식	.37(4.60)***	.52(6.74)***	.42(4.88)***	.35(4.64)***
	→학습활동	-.06(-.62)	-.38(-1.95)	.24(1.98)	-.12(-1.19)
	→학교만족도	.08(.96)	.09(.54)	.18(1.73)	.41(2.83)**
진로 및 자아의식	→학습활동	.67(2.58)**	.89(2.44)*	.38(2.30)*	.67(2.98)**
	→학교만족도	.56(2.43)*	.46(1.38)	.21(1.52)	-.48(-.94)
학습활동	→학교만족도	.25(1.12)	.17(.56)	.35(2.00)*	.84(1.21)
방해오차(ζ)	진로 및 자아의식	.73	.72	.76	.82
	학습활동	.45	.39	.66	.35
	학교만족도	.34	.53	.58	.41

표준화추정치(t-value), \* $p < .05$ , \*\* $p < .01$ , \*\*\* $p < .001$



〈표 11〉 학교만족도 인과관계 간접효과

경로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관여	→학습활동	.05(5.61)***	.04(1.03)	.07(3.44)***	.05(2.08)*
	→학교만족도	.08(8.56)***	.04(1.68)	.09(5.10)***	.06(3.03)**
수업분위기	→학습활동	.00(-.35)	.01(.22)	.06(2.96)**	.04(1.61)
	→학교만족도	.03(2.99)**	.06(1.72)	.08(4.55)***	.08(3.05)**
친구인식	→학습활동	.19(11.35)***	.22(4.16)***	.25(7.43)***	.22(3.86)***
	→학교만족도	.16(13.13)***	.15(4.09)***	.18(7.87)***	.15(5.07)***
진로 및 자아의식	→학교만족도	.18(8.99)***	.15(2.09)*	.21(4.40)***	.17(2.81)**
경로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교육관여	→학습활동	.16(2.03)*	.02(.36)	.09(1.81)	.00(.10)
	→학교만족도	.21(2.91)**	.01(.31)	.13(2.13)	.13(1.01)
수업분위기	→학습활동	.13(1.83)	-.11(-1.35)	-.01(-.19)	.10(1.62)
	→학교만족도	.17(2.54)*	-.03(-.26)	-.03(-.63)	.31(1.17)
친구인식	→학습활동	.25(2.29)*	.46(2.33)*	.16(2.14)*	.24(2.55)*
	→학교만족도	.25(3.18)**	.25(1.65)	.23(2.58)*	-.07(-.59)
진로 및 자아의식	→학교만족도	.17(1.05)	.16(.55)	.13(1.60)	.56(1.11)

외생변수인 친구인식→학교만족도 또한 수업분위기 영향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5개 학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소속하게 될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과 독립적 존재로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 청소년기에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년배인 친구가 학교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예체능 계열 학교에서 친구인식→학교만족도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학교만족도를 확인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과도기이며 가정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따라서 학교에서의 상호작용이 가정 지원과 더불어 중요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기 학교만족도는 건강한 청소년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교육관여, 학교의 수업분위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의미 있는 주변인인 친구인식을 외생변수로 하고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 과업인 진로및자아의식, 학교생활 주된 활동인 학습활동이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목적과 교육방향이 다른 8개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만족도가 어떤 차이를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학교만족

도 분석 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방해오차( $\zeta$ )이다. 일반고와 마이스터고 진로및자아의식은 각각 .85, .82이고, 학습활동은 .69, .65이며, 학교만족도는 .61, .54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각각의 요인이 독립요인에 의해 약15%에서 46%정도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모형의 적절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육관여, 수업분위기, 친구인식 그리고 진로 및 자아의식과 학습활동이 학교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일반고와 마이스터고 외 6개 학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학교만족도를 확인하는데 있어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요인이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목적과 교육방향이 다른 8개 유형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교만족도를 확인하였다. 고등학교 학생은 청소년기 발달과정에 있고, 학업활동이 주요 생활이기 때문에 학교만족도는 청소년기 고등학생의 현재 발달수준과 고등학교를 졸업 이후 성인기 생활과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가치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8개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학교만족도는 부모의 교육관여, 학교의 수업분위기, 청소년기 중요타인인 친구인식을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청소년기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라는 측면에서 자아 및 진로의식, 학교의 중요활동인 학습활동을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요인으로 구성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관여가 진로 및 자아의식에 학습활동 그리고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 진로 및 자아의식과 학습활동, 마이스터고와 체육고에서 진로 및 자아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고 그 외 유형의 학교와 경로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관여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활동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모의 교육관여는 청소년기 절정에 있는 고등학생에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의 수업분위기가 진로 및 자아의식에 학습활동 그리고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유형의 학교(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업분위기는 외국어고의 진로 및 자아의식, 과학고의 학습활동, 체육고의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고, 자율고 및 마이스터고에서는 진로 및 자아의식에 미치는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나머지 경로는 모두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수업분위기 영향은 특수한 재능을 가진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그 외 학교 학생들과 다른 차원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의미 있는 타인인 친구는 가정의 영향을 벗어나고 있는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향요인



이라 판단된다. 또한 학교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동년배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친구인식은 학교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분석결과 학교유형과는 상관없이 친구인식은 학습활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물며 특성화고인 경우에는 친구인식→학습활동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부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친구인식이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학교유형에 따라 가정배경 및 학교 특성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 맥락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 및 자아의식과 학습활동은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진로 및 자아의식은 특수목적고 4개 학교유형 중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가 학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학습활동은 외국어고, 예술고, 과학고에서 학교만족도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나 그 외 학교와 경로는 모두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만족도는 학교의 목적과 교육과정 더불어 교육방향이 다른 8개 유형의 학교에 따라 인과관계 맥락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수목적고에 해당하는 4개 학교(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와 그 외 학교와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8개 고등학교 유형의 전반적인 특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학교만족도 인과관계 맥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 상술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사한 학교유형이나 또는 매우 다른 학교 유형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참고문헌 ❖

- 강명희·유영란·유지원(20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나타난 고등학생의 지각된 교사태도,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교육과학연구*, 제45권 제1호, 181-203.
- 곽수란(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1호, 1-26
- \_\_\_\_\_(2007). 초·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1호, 1-21
- \_\_\_\_\_(2009). 중·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패널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19권 제4호, 1-20.
- 김두환·김지혜(2011). 부모친구·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 제45권 제4호, 128-168.
- 김민성·신택수(2010). 중학생이 지각한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자기결정성, 학습노력, 학업 성취, 학교만족도의 인과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제11권 제3호, 43-70.
- 김양분·류한구·남궁지영·김일혁·김민정(2007). 학생용 및 학부모용 학교 교육 만족도 지표 개발. *교육평가연구*, 제20권 제3호, 1-27.
- 김용래 · 김태은(2001). 학업·비학업 자아개념, 학교태도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탐색. *교육연구논총*, 제18권, 3-46.
- 김은주, 정명진(2016).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학교폭력 및 사이버불링 피해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7호, 87-115.
- 박행모·문승태·김희수(2008). 농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0권 제3호, 33-53.
- 박혜숙(2016). 학교만족도 타당화와 관련변인 탐색: 서울교육종단자료.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4권 제4호, 101-124.
- 배상훈·김환식·김효선(2011). 마이스터고 학생의 학교소속감, 학교만족도, 학교수업 및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 특성화고 및 일반고 학생과 비교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4권 제3호, 155-180.
- 백병부·황여정·성열관(2012). 고교선택제가 배정결과만족도 및 학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제22권 제4호, 141-170.
- 서인석·황홍익(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159-180.
- 신나나·도현심 (200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8권 제3호, 99-113.
- 윤채영·김경애(2016). 마이스터고 신입생의 학업동기와 학교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제64권 제2호, 393-416.
- 윤현영(2003). 중학생의 완벽성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심리학회*, 제17권 제3호, 313-330.
- 이경아·정현희(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과 심리치료*, 제11권 제2호, 213-226.



이명훈 (2007).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변인. *대한공업교육학회지*, 제32권 제2호, 1-22.

이성주(2015). 초·중·고 학생의 학교만족도 변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569-588.

이성주·김승희·김해경(2016).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제5권 제2호, 143-166.

이진석·박정환·문창배(2010).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제12권 제1호, 189-212.

정규석(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1호, 235-252.

조은정·이혜경 (2007). 청소년패널연구의 위험행동요인, 학교요인, 가족요인에 따른 학교생활부 적응.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4호, 59-80.

최지은·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 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2호, 199-220.

황여정·김경근 (2006).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결정요인. *교육사회학 연구*, 제16권 제2호, 181-203.

<http://www.hifive.go.kr>.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2018. 8. 27 인출.

<http://www.law.go.kr>.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18. 8. 27 인출.

Astone, N. M., & McLanahan, S. (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309-320.

Bandura, A., Barbarane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ien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Bruyn, E. H., Dekovic, M., & Meijnen, G. W. (2003). Parenting, goal orientations, classroom behavior, and school success in early adolescence.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24(4), 393-412.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Y: McGraw-Hill.

Danielsen, A. G., Samdal, O., Hetland, J., & Wold, B. (2009). School-Related social support and student perceived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4), 303-318.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Elliot, K. M., & Shin, D. Y. (2002). Student satisfaction an alternative approach to assessing this important concept. *Journal of Higher Education Policy and Management*, 24(2), 197-209.

Gilman, R. and Huebner, S. (2003).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2), 192-205.

Huebner, E. S., & McCullough, G. (2000). Correlates of school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3, 331-335.

Huebner, E. S., Ash, C., & Laughlin, J. E. (2001). Life Experiences, Locus of control, and school satisfaction in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 167-183.

- Kurdek, L.A., Fine, M. A., & Sinclair, R. J. (1985). School adjustment in sixth graders: Parenting transactions, family climate, and peer norm effects. *Child Development*, 66, 430-445.
- Marks, R. B. (2000). Determinants of students evaluations of global measures of instructor and course value.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22(2), 108-119.
- McGuire, K. D., & Weisz, J. R. (1982).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correlates of preadolescent chumship.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53, 1478-1484.
- Osterman, K. F. (2000). Students need for belonging in the school communit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0, 323-367.
- Pate, W. S. (1993). Consumer satisfaction, determinants, and post-purchase actions in higher education: a model to guide academic managers. *College and University*, 68(2) 100-107.
- Powell, S. R. (1993). *The power of positive peer influence: Leadership training for today's teens*. In J.E. Zins and M.J. Elias(eds.), *Promoting student success through group intervention*. NY: Haworth Press.
- Verkuyten, M., & Thijs, J. R. A. J. (2002). School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Performance, Peer Relations, Ethnicity and Gender. *Social Indicators Research*, 59, 203-228.



## ❖ Abstract ❖

### A study of school satisfaction by high school type

Kwak Soo-Ran(Koguryeo College)

This study analysis school satisfaction by eight types of high school the effects of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school atmosphere, career and self - awareness and learning activities on school satisfaction, using KEEP II data. The analytical method was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ausal relationship was confirmed using the LISREL program.

As a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ntext on causality between school satisfaction by school types. Especially, foreign language, arts, physical education, and science high schools, which correspond to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have a difference in the context of school satisfaction with other types of high school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educational activities appropriate to the purpose and educational direction of the school by confirming the school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high school.

**Key words:** school satisfaction, type of high school, KEEP II